

2014년 5월 12일 월요일 밤새 많은 신승권

소집해제를 한달 앞두고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.

처음에는 아이들이 일기를 쓰게 하기 위해 오신 분들 언젠갈 알았는데 오늘 쓰는 이 일기를 단순히 하루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쓰는 일기가 아니라 이 일기를 기록하고 보관 한 후 1년 뒤에 다시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 그래서 소집해제를 앞두고 26이런 나이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.

내년 이 날에 내가 쓴 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지 정말 궁금하다. 이 일기는 단순히 오늘을 기억하는 일기가 아닌 내년의 나에게 쓰는 일기이기도 한 것 같다.

지금 온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. 4회에 발을 내딛을 준비를 하는 모든 20대들의 모든 고민과 번외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.

24살에 나무와 숲 지역 아동센터라는 곳에 왔고 1달을 남겨둔 지금 되돌아보면 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.

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이들과 지내다보니 힘들었던 일, 좋았던 일, 슬펐던 일까지 참 많은 감점들이 많았고 많이 싸우기도 많이 실망하기도 했다.

그러면서 느낀건 나와 아이들의 다름이었다. 들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걸 깨닫기 까지 참 오래 걸렸던 것 같다.

1달 뒤 아이들을 못 보게 된다면 정이 많은 나에게도 마음 편한이 참려 전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.

여각 친구가 없다고 놀리는 아이들부터 똥똥하다고 놀렸던 아이들까지 너무 나도 보고 싶을 것이다.

coyotesinji @ naver.com

신승권